

미국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지지하는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 성명서

2021년 1월 12일, 메릴랜드주 록빌 - 오늘,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미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지지하는 다음 성명을 발표하였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내란을 조장하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미 하원 결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며, 방어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뒤집을 목적으로 정치적 불안감을 조장하였다. 그는 매일 집무실에 머물면서 미국 국민의 보건복지에 위협을 가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에 처하게 하며,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입지에 해를 끼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혼란 중에도 대통령 당선인인 조 바이든과 부통령 당선인인 카멀라 해리스의 승리를 인정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켜준 의회 지도자들에 대해 무한히 자랑스럽고 이에 감사한다. 이제는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수행할 때이다.”

“또한, 우리는 미 국회 의사당에서 정부의 질서 있고 평화로운 국정 운영이 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출동 명령에 응해준 우리의 경찰, 그리고 소방 및 구조 요원에게도 감사한다. 우리는 또한 이 반란 사태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도 중인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이 정치적 혼란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주민, 의회 지도자 및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더 밝은 날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다. 민주주의의 불꽃은 특히 대부분 미국인이 공정, 정의 및 법규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면, 결코 성난 집단이나 악의적이고 비이성적인 지도자의 미사여구에 의해서 꺼질 수 없다. 우리는 치유, 회복 및 공익에 중점을 두는 우리나라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고대한다.”